

보도시점 (온라인) 2024. 11. 18.(월) 12:00
(지 면) 2024. 11. 19.(화) 조간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로 관리해 산업 활성화에 활용한다

- 주소와 관련한 산업 규모 파악 및 경제효과 측정 가능
- 통계 기반 맞춤 지원 정책 수립으로 주소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통계를 승인하고 있으며,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주소정보 산업과 관련된 정제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 현재 주소정보는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산업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주소정보산업 사업체 판별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 대분류는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 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구분했다.

- 중분류는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등 6개로 구분됐으며, 소분류는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등 9개로 구분하고 분류에 따른 산업별 정의도 정립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11.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111.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112.그 외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도로명판 제외)
	19.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190.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2.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21.주소정보 수집·처리업	211.주소정보 수집업
		212.주소정보 처리업
	22.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	221.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222.주소정보 제공업
	29.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290.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3.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0.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00.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 조사 항목은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현황 △종사자 수 △고용 현황 △매출액 △사업체별 주소정보사용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애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 행정안전부는 분류된 업종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소정보산업 관련 사업체 명부를 연계해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선별하였고, 추후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이뤄지며, 이후 주소정보산업에 대한 매출 규모 등 총 35개 항목을 조사한 통계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 공표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연구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소정보산업 관련 사업체는 산업의 성장률, 매출액 분포 분석에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 변화 대응,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민재 차관보는 “국가통계 승인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소정보산업통계를 활용하여 향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담당자	주무관	박용준 (044-205-3560)



참고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및 부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조사목적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제공 ▶주소정보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범위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이하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단체)
조사대상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항목	▶5부분 35문항
조사대상기간	▶조사 기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조사실시기간	▶조사 기준년도 익년 11월~12월
공표시기	▶조사 기준년도 익년 2월말
공표방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간행물, 보도자료
공표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법적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주소정보산업의 진흥)1호 나목 -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조사체계	▶사업체⇨조사전문기관⇨주소기반산업협회⇨행정안전부
승인일자	▶11월 13일